

학생 성공의 기본을 다지는 교육회복



2022 교육회복사례 매거진

VOL. 01

학생 성공의 기본을 다지는 교육회복

2022 교육회복사례 매거진

VOL. 01

학생 성공의 기본을 다지는 교육회복

PART 1 교육회복 정책을 논하다 | PART 2 교육회복을 펼치다 | PART 3 교육회복으로 도약하다

CONTENTS

PART 1.

교육회복 정책을 논하다

01. 코로나가 아이들에게 남긴 상처들	8
_ 명지병원 교수 김현수	
02. 학교에서의 교육회복 방향 '교육회복과 적극적 시민교육'	10
_ 한신대학교 교수 강순원	
03. 성장하는 부모가 교육회복의 밑거름	12
'그림책, 마음을 잇다!'_ 인천송일초등학교 교장 원은숙	
04. 모두의 정체성 회복과 수용을 통한 교육회복	14
_ 인천장야초등학교 교사 하승천	

PART 2.

교육회복을 펼치다

01. 인천난정평화교육원과 함께 평화의 하루, 모두의 평화를	18
상상하다_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02. 몸과 마음 회복을 위한 '건강 꿀팁(Tip) 프로젝트'	20
_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03. 모든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과 성장	23
_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0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시작되는 교육회복	25
'같이가치 어울림' 학교폭력 예방교육	
_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05. 마음 쑥쑥! 행복 나들이	28
_ 인천강화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06. 교육회복 역량 지원 '교사 - 마음을 맞대다'	30
_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07. 회복의 출발점 '우리 가족'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통해	32
지원하다_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08. 마음을 이어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다국어교육,	34
교육회복에 세계를 품은 꿈을 더하다	
_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PART 3.

교육회복으로 도약하다

01. 여름방학 맞춤형 학습반올림으로 교육회복에 다가가다 _ 인천명현초등학교	38	08. 채우고! 나누고! 함께라서 행복한 선학 공동체 _ 선학중학교	52
02. 별빛이 씨앗되어 마음이 자라는 큰 별들의 3월 이야기 _ 인천별빛초등학교	40	09. 별 같은 눈빛을 담아 뜨거운 열정을 품고! _ 청천중학교	55
03. 토닥토닥 괜찮아, 어울림으로 시작하는 마음 회복 _ 인천부평서초등학교	42	10. 일취월장 부공인_ 부평공업고등학교	57
04. 교육회복의 장 '석천 글로벌 투게터 페스티벌' _ 인천석천초등학교	44	11. '교육회복'을 위한 '함께하기'_ 부평여자고등학교	59
05. 다시 쓰는 행복 이야기, '모두가 별이다' _ 인천송일초등학교	46	12. 함께채움으로 교육회복의 길을 찾다_ 선인고등학교	61
06. 학습반올림으로 우리 함께 가자_ 인천장야초등학교	48	13. 소중한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교육회복 _ 인천초은고등학교	63
07. 심리·정서 및 체력 회복을 위한 작은 섬 학교의 마음 맞닿음 공동체_ 해명초등학교	50	14. 행복한 학교, 즐거운 교실 '특수교육은 청인처럼' _ 인천청인학교	65

PART

1

학생 성공의 기본을 다지는 교육회복



교육회복 정책을 논하다

코로나가 아이들에게 남긴 상처들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현수



코로나로 인한 마음 앓이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큰 상처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인 70~80대 어른 세대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방역 정책 등 여러 조치들은 생소할 뿐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최초'의 일들이었습니다.

올해 제가 출간한 '코로나가 아이들에게 남긴 상처들(2022, 해냄출판사)'는 책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새롭게 듣고 대처해야 하는 내용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더 큰 파열이 있었거나 격차가 커진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코로나는 청소년, 청년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쳤습니다. 실제로 치명률이 높았던 노인 세대를 제외하고, 우울과 자살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집단은 청년과 청소년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수도권의 대도시에서는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이 큰 증가세를 보였다는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20대 청년의 자살 시도 비율 역시 급증했고, 코로나가 청년들을 조용히 학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신건강 악화를 포함한 심리·정서적 불안정을 보이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소아과의사학회에서는 2021년 10월 미국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가 국가적 차원에서 응급 상태에 처했다는 성명서를 내고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영국, 유럽연합, 스웨덴, 브라질 등 많은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등교와 생활, 지능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다양한 스펙트럼의 상처에 강력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 정부가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롱 코비드(Long Covid)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기준을 세우고, 후유증 클리닉을 설립하면서 경과와 추세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부모들이 '롱 코비드 키드(Long Covid Kid, LCK)'라는 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인 활동을 하며 사례를 모으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활동은 현재 유럽연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년 반을 넘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직·간접적 영향은 우리 아이들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이들을 관통하면서 남긴 상처에 고통이 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에서 고통을 빼내는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성찰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충분히 좋은 돌봄과 함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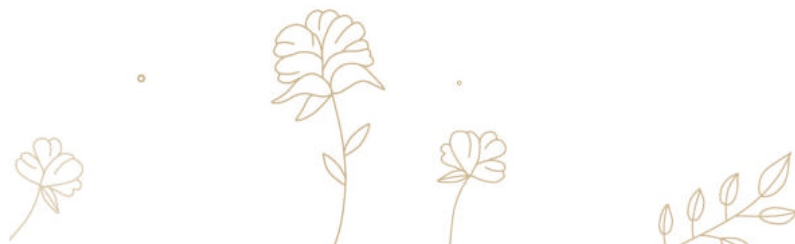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의 마음과 관계, 인지, 그리고 미래에는 쉽게 치유하지 못할 상흔이 남았습니다. 그 상처 회복에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마음 앓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코로나 세대라고 불리는 이 세대가 겪은 피해와 상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유증을 비롯한 장기적 결과를 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과감한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수업도 해야 하지만 대화도 필요합니다. 청소년들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아이들이 실감한 불평등한 세상에 대해서도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당장은 아픈 아이들을 위한 검사와 지원을 과감히 수행해야 합니다.

영미권 나라에서는 전문가들이 정부가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 클리닉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예산을 강조하고 아이들의 회복을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아쉬운 마음입니다.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아이들의 회복과 미래를 위해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이야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글은 김현수 교수님의 '코로나가 아이들에게 남긴 상처들(2022, 해냄)'에서 발췌하여 편집한 내용임

학교에서의 교육회복 방향

교육회복과 적극적 시민교육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 강순원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닫힌 학교를 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회복을 말했고, 교육복귀를 계획하던 우리 사회에서도 한동안 교육회복을 중요한 국정 지표로 삼았다. 보통 말하는 회복(recovery)이란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으로 손상되기 전의 상태로 복귀, 즉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교육회복이란 교육의 원상태를 되찾는 것인데 이것은 간단히 말해 학교라는 물리적 공동공간에서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고 놀고 밥도 먹는 대면적 교육 공동체 활동을 되찾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육회복은 두 가지 방향에서 근본적으로 달리 접근 가능하다.

첫째, 코로나로 학교 문이 닫히고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던 코로나시기의 교육손실을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는 차원의 교육회복이다. 이것은 이전의 학교교육이 문제가 없다는 관점에서 이전처럼 문을 열고 대면수업으로 복귀하면 교육의 정상적 기능이 회복된다는 현상유지적 관점의 교육회복론이다.

둘째, 코로나나 재난 등 불안요인이 발생한 근본원인을 규명하며 코로나로 인해 뒤흔어진 교육문제가 왜 사회적 편차를 넓히고 아이들과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지, 이에 대한 참여적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교육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비판적 접근이다. 여기서는 교육회복이 단순한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이전 체제의 문제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보수하여 어떠한 재난이나 문제상황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이에 굳건히 응전할 수 있는 마음 근력을 길러주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길러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한 단순한 대응(respond)에서 회복(recovery) 그리고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상태로 가게 하는 생태계 복원능력같은 역량을 가르는 교육 본연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며 대부분 국제기구는 이러한 비판적 접근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사회는 비운 뒤 땅이 굳듯이 재난으로 뒤흔어진 교육모순을 분명히 인지하여 교육의 취약성을 집중적으로 치유하고 개선할 기회를 갖게 되며 이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보다 안전한 교육지대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20년 1월 이래 지난 3년간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가 헝클어진 사회환경으로 사회적 안전망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 학교단위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회복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교육의 미래를 준비할지 화급히 재고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학교는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찰이 이

시점에서 요구된다. 교육제도의 발전에서 보면 고등교육제도가 가장 먼저 생겼고 중등, 초등, 학령전 수준으로 제도화된다. 처음엔 아이들에게 모두를 위한 역량개발과 강제 노동력으로부터 해방을 상징하던 학교교육이 점차 아이들의 도덕적 순화를 위한 감금장치로 변질되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 도구로 민주주의 상징인 공정과 공평과는 자꾸만 멀어져가는 문제 덩어리로만 부각된다. 특히 4차 산업사회의 도래를 이야기하던 미래학자들에게 학교교육은 아마도 가장 먼저 없어질 거대 기구에 불과한 것으로만 이야기되었다. 그런 학교교육이, 놀랍게도, 코로나로 학교문을 닫자 학교교육의 순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일면서 되살아났다. 그것은 지적 전달,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의 사회화, 돌봄 및 시민의식의 성장 등 포괄적인 기능을 학교가 담당해 왔었고, 이것은 사회적 위기가 불어올 때마다 훨씬 더 강하게 요구받는 학교교육의 기능이라는 사회적 공감이다. 이를 통해 학교는 죽음의 교육에서 살림의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창출할 수 있고 이것은 전반적인 정치리더십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적극적 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둘째, 학교교육의 변혁역량은 누가 뭐래도 학교교육의 핵심 주체적 행위자인 교사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집단지성에 달려있다. 한국의 교사 인지도나 지적 수준에서의 역량은 세계 최고이나 교직만족도나 교사 존경도는 상당히 떨어진다. 이 편차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아마도 교직에 대한 기본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교과전문가로서의 교사는 당연하지만 그 이상이여야 한다. 교직원노조가 교과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전문성만 강조하고 교사복지만을 강조해온 데서 오늘날 사회적 기대로부터 엄청난 이탈이 생겨났다고 본다. 시민으로서 교사는 피스메이커여야 하고 사랑노동자로서 교육돌봄의 행위주체자로 거듭나야 하며,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행동하는 문화노동자로서 혼종적 정체성을 발달시켜야 한다. 이럴 때 어떤 재난이 와도, 교사는 아이들을 살리며 그런 이타적 행위를 통해 자신도 살리는 교육회복의 행위주체자로 거듭날 수 있다. 이것이 인천교육청 앞 정원에 써있는, 모든 교사가 지향해야 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이다.

셋째, 한국사회가 걸어온 길을 보편적 단위로 확장하고 우리 아이들의 세계시민정신을 그 안에서 녹여 줄 지구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국제사회가 합의한 교육명제를 학교단위에서도 실천하는 그런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UNESCO,

OECD, WB, UNICEF 등은 이구동성으로 취약층 아이들이 코로나로부터 가장 어려움을 겪으니 그런 아이들부터 구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교육회복 에코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전부터 진행했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에도 코로나 상황을 접목시켜 아이들이 자기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깨닫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적극적 문제해결을 통해 사회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적극적 시민이 되도록 하자는 사회정서학습(Social Emotional Learning)을 강조하였다. 국제사회가 강조한 코로나 대처 방안은 국가가 제대로 된 일관성있는 정책을 세우고, 교사가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취약아동들부터 교육소외를 덜 느끼도록 하며, 비대면 수업에서의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제적 지원을 해나가자는 것이었다.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이 교육주체들이 이러한 국제동향을 인식하고 대비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것의 주체가 누구인가? 국가가 제대로 안 한다면 학교는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을 가동시켜야 하고 여기서 학교 리더십이 요구된다. 교육민주화란 다른 어떤 것보다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과정이다. 학교마다 편차가 크다. 교사들의 역량, 지역사회의 지원역량, 학부모들의 참여수준도 다르다. 이런 차이가 차별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학교단위 자원을 개별화하고 총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학교리더십이다. 코로나가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비치나 코로나의 후유증은 아직도 상당하다. 이것을 잘 풀어나갈 지혜가 필요하다. 학교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모든 교육주체자들의 역량을 개발한다면 아마도 참여수준도 확 달라질 것이다. 이에 대한 중지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아픈 사람이 원래 아프지 않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데, 아픈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지만 병이 근본적으로 치유된다. 원인 규명없이 악만 투여해서 일단 뻥 뚫리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회복이 아니다. 교육회복도 마찬가지이다. 학교교육이 유래한 기원을 찾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의 원상태를 되찾아 주는 것이다. 여기엔 차별도 없고, 불평공정이나 불편부당함도 없고 아이들의 상처를 굶는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지 않도록 코로나로 붙어있는 교육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여 더 나은 교육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교육회복의 진정한 방향이다.

성장하는 부모가 교육회복의 밑거름 그림책, 마음을 잇다!

인천송일초등학교
교장 원은숙



I. 시작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혼란과 상실은 당연시했던 우리 일상에 대한 고마움과 존재의 가치, 관계의 거리 등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고 고민하도록 하였다.

모여야 하는 교육·떨어져야 하는
방역의 어려움속에서 학교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달려가는 곳
모두의 배움이 멈추지 않는 곳
저마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곳 등

코로나19의 상황은 이러한 학교의 의미와 역할에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고, 많은 것들의 결핍을 가져오기도 했으며, 미래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방법에 주목하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이제 다시,

그동안의 결핍을 채우고 미래 교육을 위해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육 회복과 선순환적 변화를 위해 본교에서 실시한 학부모 연수(부모교육 이수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그림책, 마음을 잇다! (부모교육 이수제)

'모두가 별이다!'

교직 생활에 힘들었던 시간, 기적처럼 우연히 첫 제자들이 찾아왔다. 말수 없던 소극적인 아이·공부가 부족했던 아이들도 어느새 사회의 한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였고, 함께 달려와 따뜻한 시간을 나누었다. 그때 밤하늘의 별과 내 옆의 제자들을 보며 갖게 된 생각은 '그래, 너희가 모두 별이다!'였다.

학생·선생님·학부모·교직원 모두가 소중한 사람
서로 존중하고 나누는 사람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이후 '모두가 별이다!'를 경영관, 교육활동의 근간으로 펼쳐가고 있다.

그림책, 마음을 잇다!(부모교육 이수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학교 담장에 빼곡히 둘러서서 손짓하는 학부모님들의 모습에 아이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느껴진다. 그런데 바로 그 담장 밑에 빼곡히 심어 놓 분홍빛의 낮달맞이꽃은

발걸음에 밟혀서 꽃을 피우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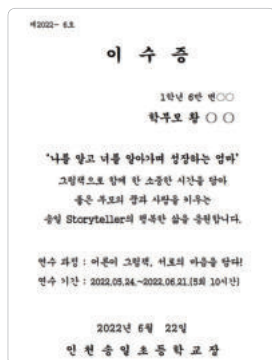
우리는 모두 '좋은 부모'로서 내 아이가 행복해지기를 소망한다. 아이가 최초로 만나는 부모는 '아동기-사춘기-청년기-중년기-노년기' 인생 각 단계별 모든 발달과업의 토대며, 안전기지이며, 가장 근거리에서 학습의 모델링을 하는 대상이다. 심리 성장과 발달에 가장 적절하게 반응하고, 일관되게 애정을 표현해주는 '좋은 부모'를 위해 꾸준한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교에서는 코로나19의 지친 일상을 치유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를 위해 '나를 알고 너를 알아가며 성장하는 부모'란 주제로 그림책과 심리이론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모교육 이수제'를 2021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부모교육 이수제 실제」 어른이 그림책, 서로의 마음을 담다

회기	프로그램 내용	그림책
1	그렇게 부모가 된다. • 아이 마음 들여다보기 / 엄마 마음 다독이기(그림책과 심리이론으로) • 자녀 양육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 자기주도적 성장을 돕는 부모 역할 찾기	으르렁 아빠 메두사 엄마 지금은 안돼 버나드
2	부모와 아이 사이 • 부모의 생활양식과 자녀와의 관계 • 발달단계와 기질에 대한 이해	내 이름은 자가주
3	부모와 아이의 즐거운 의사소통 • 존중과 경청의 의사소통법 알기 • 건강한 의사소통 방식을 익히기	거북아 뮌하니
4	부모, 감정의 주인이 되다. • 화가 나는 것 VS 화를 내는 것 • 비합리적 신념과 나의 감정 이해하기	고함쟁이 엄마
5	좋은 엄마보다, 나인 엄마로 • 성숙한 부모 · 어른이 된다는 것 • 가장 좋은 엄마는 행복한 엄마	파랑 오리 초록 거북

※ 2022년-그림책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제. 10시간



부모교육 이수증 실제

그림책은 아이들의 독서 매체나 학습자료뿐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림책은 어른들을 단순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휴식을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서 치유의 치료 세션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이다(그림책 성장학교).

이를 활용하여 그림책이 학습자료에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치유 매체로까지의 가치를 확장하며, 나를 바로 세워서 마음의 회복력을 키워주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독서 습관 형성에 도 긍정적인 매체로써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III. 맺으며

번짐,
번져야 살지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
번짐,
번져야 사랑이지.

장석남. 수목정원 9. 중에서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회복은 우리 일상을 통해 학생 · 교사 ·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며, 특히 학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다양한 노력들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핍을 채우고 미래 교육을 위한 '배움의 공동체'

'건강한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주고 받으며 함께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 교육 이수제의 긍정적 에너지가 가정-학생-학교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를, 학교 교육의 행복한 미래를 소망한다.

모두의 정체성 회복과 수용을 통한 교육회복

인천장미초등학교
교사 하승천

4

교육공동체에서 ‘회복’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과거로의 회귀가 회복일까? 아니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감이 회복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렇듯 회복의 의미와 회복을 위한 방법론적 차원은 다양하다. 본 고에서는 여러 회복 개념 중에서도 그 의미를 ‘정체성’ 차원에서 찾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일상을 거의 회복한 듯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팬데믹에 대한 그림자는 교육 현장 곳곳에 남아있다. 주목할 점은 ‘그림자’라고 표현한 흔적이 코로나로부터 발생한 그림자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교육 현장에 내재한 그림자라는 것이다. 팬데믹은 그 그림자를 다시 ‘호출’하였다. 즉 우리는 ‘호출의 그림자’ 속에서 교육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 그림자는 무엇인가? 그 그림자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어떠한 존재로 규정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정체성 차원에서의 회복적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정해진 규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학부모는 자녀들의 학습 결손과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존재로, 교사는 교육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역할과 새로이 고려해야 하는 삶의 형태가 주어지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이 한가로운 질문은 한가롭지 않은 상황에서 탄생한다.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을 때는, 근본적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정을 위한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 비로서 ‘나’가 된다. 반대로 ‘너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는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너는 ‘왜 규범 안에 존재하지 않는가?’, ‘내가 인정하는 너는 누구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인정을 받지 못한 존재가 바로 ‘너’이다. 이러한 질문은 공통으로 내부와 외부, 안과 밖, 인정과 비인정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조주영, 2018).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 약자로 지칭되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철학자이다. 버틀러 사상에 따르면 ‘나와 너’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규범에 의해 발생한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어졌다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무엇인가 수행했을 때 형성되는 것으로서, 규범에 의해 우리의 정체성이 또한 형성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버틀러에게 규범은 항상 변하면서 재규정된다. 이 말은 우리의 정체성 또한 변화하고 재규

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Butler, 2013).

그렇다면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공동체 주체(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새롭게 형성된 정체성은 어떤 모습일까? 학생의 경우부터 고려해 보자. 학생 입장에서 학교에 나왔을 때,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입된 규범은 '거리유지'와 '자기보호'였던 적이 있었다. 학생들이 지켜나가는 규율은 사회·국가에서 만들어낸 권력에 의한 규율이며, 때로는 이 규율을 수행하면서 학생들 스스로도 규율을 창출해 나간다. 한편 학생들 사이에서 재창출되는 규율은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는) 더 잔인한 규율이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에 관련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그 상황에서도 학업을 유지하면서 인정을 받기 위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을 내면화하지 못한 학생들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 곧 우리가 인정하는 세계에서 점차 멀어지는 '너'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대에 학부모의 정체성은 새로운 형태의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가정교사로서 해야 할 역할, 자녀들의 비서 역할, 경제적 위기 속에서의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로써 한 층 강화된 역할이 요구된다. 새로운 인정욕구는 새로운 규범을 만든다. '요즘 시대에 학부모는 이러해야 해'라는 규율을 스스로 형성하면서 또한 새로운 '너'를 형성한다. 이때 '너'는 대부분 교사나 국가로 치환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학부모가 교사·국가에 더욱 강력한 규범(교사는 이러해야 해, 국가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을 적용하게 된다. '너'가 그 소임을 수행치 못할 시에는 비난의 화살이 돌아온다.

교사의 경우는 어떠한가? 교사는 교육의 본질과 교사 됨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면서 인정받기를 원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최전방에서 방역하는 요원으로서, 온라인 수업하는 콘텐츠 제작자로서,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규율을 요구하지만 그 모습에 한없는 갈등을 느끼는 존재로 재탄생한다. 이 모든 역할에서 발생하는 질문은 '교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와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것들이다. 교사들의 이러한 질문들은 스스로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교육자의 이상향을 끊임없이 형성한다. 그럼으로써 비(非)교육자라는 '너'라는 존재도 다시 태어난다. 교사는 끊임없이 나와 다른 '너'와 마주하는 삶을 살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것이다.

하지만 버틀러는 이러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Butler,

2008). 교사, 학생, 학부모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특히 학생은 더욱 그러하다. 물론 상황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외부에서 요구되는 정체성으로 변모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새로운 '너'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너'로 규정하기 전에 우리는 다름이 아닌 앎의 한계들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버틀러의 주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서 혼란만을 겪을 필요는 없다. 학생은 규율에 사로잡혀 정체성을 형성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 규율에 벗어났다고 해서 남을 손가락질할 필요도 스스로 주눅들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학부모는 좀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자녀의 학습으로부터, 경제적 가장으로부터 말이다. 이 역할을 잘못 했다고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자격은 없다. 교사는 자신이 이 상황에서 참교사의 자질이 없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 다만 스스로 한계를 경험하는 것뿐이다. 앎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자에게는 소중한 교육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정체성을 맞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규범에 의한 고정된 정체성을 강요할 때 또 다른 '너'가 탄생한다. 여러분은 또 다른 너를 환대할 자신이 있는가?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과정이 바로 회복이다. 기존 교육체제 및 문화 안에서 형성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또 다른 정체성을 고민한다. 고민하는 그것이야말로 회복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라! 규범에 짜 맞춰진 정체성보다는 변화하는 정체성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풍토가 회복의 문화를 형성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참고 문헌

- 조주영(2018). 「취약성 개념을 통한 상호주관적 인정관계의 재구성: 인정에 대한 버틀러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제30권, 35-59.
- 주디스 버틀러(2008).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양효실 옮김, 경성학교출판부.
- _____ (2013). 「윤리적 폭력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양효실 옮김, 인간사랑.

PART

2

학생 성공의 기본을 다지는 교육회복



교육회복을 펼치다

인천난정평화교육원과 함께

01 평화의 하루, 모두의 평화를 상상하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드넓은 황금 들녘이 펼쳐진 조용한 시골 마을, 이곳은 바로 강화군 교동도 난정리이다. ‘우물가에 핀 난초(난정)’라는 예쁜 이름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빼어난 이곳에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이 설립되었다. 지난 6월부터 1일 체험 평화교육이 시작되면서 조용하던 난정리는 매일 찾아오는 학생들로 떠들썩하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만나는 쌀, 호박, 고추, 상추가 심어진 논밭 속에서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평화의 하루를 시작한다.

똑똑똑, 공감으로 평화의 문을 두드려요

“희망님, 보고 싶은 가족을 지금부터 볼 수 없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갑자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져요.”

때로는 평화롭지 못한 상황에서 평화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나의 소중한 사람을 내려놓는 체험은 실향민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또한 나의 주변 구석구석에 있는 평화와 비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새롭게 나의 일상을 돌아보게 한다. 이처럼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공감’해보는 것에서 평화교육을 시작한다.





뚜벅뚜벅,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요

교동도는 남북한 접경 지역으로 검문소를 통과해야 들어올 수 있다. 해병대가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익숙하지 않는 광경에 학생들은 교동도에 들어오면서부터 낯설음을 느낀다. 더불어 망향대, 대룡시장, 철책선 등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분단을 살펴볼 수 있는 곳과 화개산의 생태가 살아 숨 쉬는 길, 송암 박두성 생가의 인권과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을 직접 탐방한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로 평화교육을 연계한다. 한 걸음에 다양한 구성원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임을 함께 이야기하고, 두 걸음에 평화는 갈등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임을 생각하며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본다.



도란도란, 모두의 평화를 상상해요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하루 동안의 평화교육에 더 많은 이야기를 담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더 많은 평화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나에서 시작된 평화가 모두의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상상하라! 이를 위해 인천난정평화교육원 내에는 평화전시관을 운영한다. 미디어 아트 체험을 통한 평화의 공유지 상상, 강화와 개성의 평화여행 꿈꾸기, 다양한 생명체와 공존하는 미래섬 만들기 등은 평화의 상상에 흥미를 더해 준다. '상상이 현실이 된다'라는 말처럼 평화적 상상력은 평화로운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인천난정평화교육원과 함께 평화의 하루를 마치며 학생들은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들을 다짐하고 돌아간다. 학생들의 이러한 다짐이 이어지고 이어져 평화·공존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자라나도록 우리의 평화교육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2023년부터는 생활동이 구축되어 1박 2일 숙박형 평화교육이 시작되니 더욱 기대하시라!

글·장학사 권미라

02 몸과 마음 회복을 위한 '건강 꿀팁(Tip) 프로젝트'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하나, 건강 업(Up), 행복 해피 플러스(Happy+) 인천형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은 식습관 변화, 신체활동 제한으로 학생 비만율이 증가 추세이다. 또한 신종감염병 등 질병 발생으로 예방중심·학교 기반 건강서비스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형 학생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은 첫째, 뮤지컬과 샌드아트 공연을 통해 학생 참여 중심의 감염병 예방 교육을 운영하였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격려하고 미래를 다짐하는 내용으로 총 80교에 공연을 지원하였다.





둘째, 자기건강관리 업(Up) 프로그램은 비만예방 및 자기 건강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력보호를 위한 아동 시력자가검진(눈이 보배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구강건강 지원 사업,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등을 운영하며 학생 중심, 학교 주도형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건강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배움에서 삶과 삶이 만나는 건강 습관이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둘, 교직원 건강회복 『마을건강행집』 프로그램 지원

코로나19를 장기간 겪으면서 교직원의 마음건강 회복 사업이 요구되었다. 2021년 9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종별로 맞춤형 심리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하였다. 코로나19 확진 교직원의 회복을 위해서 개인 상담 및 온라인 심리검사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

원 이용권 제공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고, 퇴근 시간 이후 문화예술 공연 관람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를 돕는 맞춤형 마음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였다.

교직원의 건강회복이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씨앗이 되어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

셋, [전국 최초] 롱코비드 건강회복 프로젝트 추진

롱코비드 건강회복 프로젝트는 2022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격리 해제 후 후유증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육구성원들의 학교 건강생활에 실질적인 회복 지원 방안을 고민하면서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의 코로나19 격리해제자를 위한 재활 안내서에 근거하여 학교 맞춤형으로 교육자료, 영상 6종, 호흡 재활·신체 회복 도구 꾸러미를 자체 개발·지원하여 생활 속 실천을 도왔으며, 관내 기관과 전국 시도에 배포하였다.



첫째, ‘건강회복 꿀팁’ 교육자료 및 영상 개발·보급 ‘건강회복 꿀팁’교육자료는 롱코비드 대상자들의 호흡기 관리, 일상생활 관리, 신체활동 관리, 인지력 향상, 미각 및 후각 관리 등 5가지 영역에 대한 관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교육자료 내용은 6편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실천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유튜브에서 탑재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건강회복 꾸러미’ 지원 꾸러미는 워크북과 호흡·신체회복도구 3종으로 구성되어 관내 461교, 16,000세트가 지원되었다. 건강관리 챌린지 워크북, 호흡 근육 강화로 폐활량을 회복하는 호흡재활도구, 상체와 하체의 뭉쳐있는 근육 등을 풀어주고, 등, 어깨, 허리 등의 근력 강화 운동을 할 수 있는 신체회복 도구인 마사지볼과 페달밴드를 지원하여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도록 지원 하였다.



넷, 다양한 사업으로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롱코비드 건강회복 프로젝트로 롱코비드 극복 지원뿐 아니라, 또래 관계형성 프로그램 「우리 반 Zoom in」지원, 코로나 시민의식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 세상 구현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높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필요를 충족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학생이 성공하는 인천교육 실현의 바탕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

글·장학사 윤희, 교사 이연수 |

03 모든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과 성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학습결손은 오랜 시간 동안 교육계의 풀지 못한 숙제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시간, 익숙하지 않은 원격수업이 학생의 학습결손을 더욱 심화하였다는 우려 가득한 시선이 다시 학교로 향한다.

모든 아이의 출발선을 확인하는 입체적 진단활동

학년초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진단검사, 수업 중 학습관찰, 상담, 이전학년도 정보 등을 활용한 입체적 진단활동을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한다. 선정된 학습지원대상학생은 학습 어려움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교실 안-학교 안-학교 밖의 촘촘한 학습지원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처방보다는 예방으로 작은 성공 경험을 이어가는 협력교사제

정규수업 중 학습결손 예방을 위해 국어, 수학 보조 강사를 투입하여 학생의 학습 장면에서 학습이 어려울 때마다 즉각 보정함으로써 제진도학습을 따라갈 수 있게 돕는 '협력교사제'를 운영하였다. 참여해본 학생들과 교사의 만족도가 상당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가 확대되고 있다.



초등 학습격차 해소 돕는 '협력교사제'(경인일보, 2022.7.19.)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시작되는 교육회복

04 '같이가치 어울림' 학교폭력 예방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코로나19로 우리 학생들은 친구들, 선생님들과 관계 맺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더불어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기도 어려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발생 양상은 사전 감지가 어려운 정서적 폭력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양상에 맞는 예방교육으로 학생의 사회·정서적 역량 함양과 교육회복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생들의 삶에 스며들어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므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울림프로그램'은 사회·정서적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학교에서 연간 8차시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울림프로그램 현장지원단을 조직하여 수업사례집을 개발 보급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같이가치 어울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감선생님과 책임교사를 대상으로 예방 및 사안처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아이 마음 읽기 학부모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학생 참여·체험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확대

학생 자치회, 동아리, 학급 등이 중심이 되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어깨동무활동을 지원합니다. 어깨동무활동은 학생 주도의 포래활동, 언어문화개선활동, 사이버폭력 예방활동, 관계중심 생활교육 등으로 어울림·사이버어울림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참여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을 지원하여 2022년 인천새말초등학교와 산곡여자중학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감수성 신장과 정서회복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교육으로 뮤지컬, 샌드아트, 참여연극 등 학교급별로 소재와 수준을 구성하여 예술과 함께 스며드는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공연교육

학교폭력 유형·추세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의 유형 및 신종 학교폭력 발생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어울림 나눔주간’을 운영합니다. 어울림 나눔주간1은 3월 집단 따돌림 예방, 어울림 나눔주간2는 6월 사이버폭력 예방 어울림 나눔주간3은 9월 언어폭력 예방 주간으로 운영합니다. 수업지도안, 캠페인 물품을 지원하며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를 발간합니다.



언어폭력예방 어울림 나눔주간



학력폭력 종합안전망 공청회



업무협약식



학교폭력예방 건강달리기 대회



같이가치 어울림 앱

전 사회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를 조성

학교폭력 예방의 전 사회적 협력을 위해 인천경찰청, 법무부, 굿네이버스 등 유관기관과 학교폭력 종합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교육청-가정법원-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실시하였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청회와 대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지역사회와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을 위해 ‘같이 가치 꽃길 걷기’, ‘같이가치 단풍길 걷기’ 캠페인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울림 앱’을 개발하여 7,700여 명이 참여하였고 10월 22일에는 학교폭력예방 건강달리기 대회를 운영하여 인천시민의 학교폭력예방 실천의지

를 다졌습니다.

학교폭력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예방’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 함량을 위한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치유와 교육으로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장학사 **고윤경**

05 마음 쑥쑥! 행복나들이

강화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회복 프로그램 '마음 쑥쑥! 행복나들이'의 시작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 인권침해 예방으로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권침해 위험이 예상되는 학생을 '더봄학생'으로 선정,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들 '더봄학생'은 대체로 가정 내 돌봄이 미흡하며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한 행동 문제도 있어서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네, 첫 시작은 그랬습니다. '더봄학생'을 비롯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뭔가 해야겠구나.

'마음 쑥쑥! 행복나들이' 프로그램 내용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 키즈카페 체험
- 작은동물원 체험
- 도예 체험

초등 고학년 및 중학생

- 볼링 체험
- 테마파크(원더박스) 체험
- 외식체험
- 에듀건 체험
- 영화관람

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회복 프로그램 '마음 쑥쑥! 행복나들이'의 의미

이 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학교 체험학습 또는 특수학급 프로그램 지원으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학 중에는



가정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름방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



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특별히 차량 지원도 했습니다. 학부모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즐거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체험으로 구성해 운영했습니다. 학령기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 살아야 할 지역사회에 대한 경험의 폭을 넓혀 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심리적 안정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말그대로 ‘행복한 나들이’를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회복 프로그램 ‘마음 쓱쓱! 행복나들이’의 추억

강화에는 작은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원도 작고 그 안에 동물도 작습니다. 기니피그, 토끼, 거북, 오리, 염소, 알파카, 양 등등. 염소와 양을 쫓아다니며 즐거워하는 유치원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만의 볼링공과 신발을 들고 와 실력을 뽐내던 중학생 친구의 자신만만한 모습, 동생에게 볼링을 가르쳐 주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에 저절로 웃음 짓기도 했습니다. 볼링 핀을 맞추지 못하고 옆으로 빠지지만 하는 볼링공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던 표정도 생각납니다. 한 학생은 의기소침해져 그만하고 싶다고 울상을 짓기도 했는데, 동생과 선생님의 끝없는 격려 속에 결국 몇 개의 핀을 쓰러뜨렸습니다. 영종도 파라다이스호텔 내 윈터박스로 갔던 테마파크 체험에서는 회전목마를 타고 나서, 또 타자며 말없이 손을 잡아 끌던 유치원 꼬맹이 덕분에 흐뭇했습니다. 짙라인을



처음 탄 중학생은 너무 무서웠으며 쩡그렸지만 그 날의 체험 학습에는 충분히 만족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모든 체험들이 즐겁지만은 않았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방학인데 나오라고 해서 짜증났던 날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 시간 속에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려고 애쓰고 있구나’하는 마음 한 자락만이라도 남았다면 충분히 의미있는 추억이 되었으리라 믿어봅니다.

글·교사 고제현

06 교육회복 역량 지원 '교사-마음을 맞대다'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신규 및 저경력교사와 수업친구가 함께하는 교육회복 역량강화 워크숍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욱)은 10월 24일 오후 3시부터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 호텔 볼룸에서 'ON(溫)동네 교사성장학교' 3기 연수로 관내 중학교 신규 및 5년 이내 저경력 교사, 동부 수업친구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및 저경력교사, 수업친구가 함께하는 교육회복 역량강화 워크숍』을 운영했다.

‘교사-마음을 맞대다’ 주제로 진행된 『신규 및 저경력교사, 수업친구가 함께하는 교육회복 역량강화 워크숍』은 ‘교사 119 이럴 땐 이렇게’, ‘학부모 상담 119’ 등 교사들의 소진을 불러오는 다양한 관계 문제에 대해 여러 책을 집필해 오신 송형호 선생님의 강의로 시작되었다.

송형호 선생님은 워크숍 사전설문에서 저경력 교사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문제로 꼽은 학생들과의 관계 및 상담방법,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응하는 팁을 안내하고 동료교사와의 소통과 협력, 관리자와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i-message(나 전달법)를 안내하였다. 특히 학부모 상담할 때의 노하우와 꿀팁이 들어있는 온라인 블로그 공유, 오픈 채팅방 초청을 통해 지속적인 상담 정보 공유와 지원을 약속했다.



ON(溫)동네 교사성장학교 - 교사와 교육회복

‘ON(溫)동네’는 ‘따뜻한 온라인 동부 수업 네트워크’의 줄임말이다. 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전문직에 들어오면서 교사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야말로 교육회복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깨닫고 교과별 교사 오픈채팅방, 밴드, 수업친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열었다. 2022 ‘ON(溫)동네 교사성장학교’는 동부 관내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교육과정 실천 전문가로서

의 교사 양성을 위해 교육청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사들의 성장학교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그리고 지난 2월 1기, 6월 2기, 10월 3기가 프로젝트 기반 수업, 에듀테크 활용, 과정중심평가 실습, 교사회복 등을 주제로 운영되었다.

‘ON(온)동네 교사성장학교’의 기획은 2021년 동부 중등 수업 현장지원단 협의회에서 시작되었다. 교사의 필요는 교사가 가장 잘 안다. 교사성장학교 커리큘럼에 대한 수업 현장지원단 57명의 의견을 모으고 각 학교의 저경력교사, 고경력교사 등 경력별로 의견을 수집했다. 그렇게 교사성장학교 커리큘럼을 짜고 자유학기를 준비하는 2월에 1기를 진행하고,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 6월에 ‘과정중심평가의 이해와 실습’연수로 2기를, 그리고 신규 및 저경력교사, 수업친구에게 회복이 필요했던 10월에 ‘교육회복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3기를 실시했다. 그리고 동부 관내 중학교 400여 명의 교사가 교사성장학교를 다녀가게 되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워크숍에 참석했던 한 중학교 교사는 “어려움, 갈등이 닥쳤을 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며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멋진 강사님 뿐만 아니라 마음을 만져주는 따뜻한 음악에 힘들었던 오늘 하루를 위로받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워크숍이 내년에도 있길 바란다고 했다. ‘교사-마음을 맞대다’라는 주제처럼 함께 마음을 맞대고 교육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교육청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다.

글·장학사 최윤경

진정한 교육회복- 교사의 힐링, 학교의 회복

진정한 교육회복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교사의 힐링과 학교의 회복에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사의 소진 해결은 단지 고경력교사 뿐만 아니라 신규교사 연수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주제였다. 그래서 교육회복 역량강화 워크숍에서는 ‘엘캄머(L Kammer)의 힐링콘서트’를 준비했다. 챔버 오케스트라 엘캄머가 준비한 영화 여인의 향기 수록곡 ‘포르 우나 카베차’,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 학교일에 지친 선생님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따뜻한 피아노 3중주 곡은 참석한 신규 및 저경력교사, 수업친구 선생님들께 따뜻한 위로를 안겨주었다. 선생님들은 40여 분간의 공연에 앙코르를 외치는 등 선물같은 공연을 즐겁게 감상했다.

회복의 출발점 ‘우리 가족’

07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통해 지원하다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우리는 학생과 함께 ‘학부모’, ‘보호자’, ‘양육자’를 만난다

당연하다고 알고 있던 것들이 때로는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다.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가족은 대부분 ‘학부모와 학생’으로 구성된 가족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교육복지안전망센터에서 만나는 가족들은 ‘학부모’, ‘보호자’, ‘양육자’로 구성된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다양한 사연이 있는 가족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 아이들과 가족들이 가진 역동을 가지고 긍정적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가족 나들이 프로그램은 시작되었다.

교육복지사 5인방이 준비한 즐거운 선물

가족 나들이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접근성과 날씨를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복지사들의 아이디어 회의도 계속되었다. 미션 장소 답사를 통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거리인지, 실현가능한 장소인지를 보며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였다. 장소 협조를 위한 행정절차도 놓치지 않았다. 복지사각지대 가족과 학생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내용의 교육복지안전망사업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지를 제작하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봄과 가을, 각 학교로 프로그램 신청 공문이 발송되었다.



어서와~! 가족 미션은 처음이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가족 나들이에 참여한 가족이 모였을 때 처음으로 건넨 인사말이다. 부모 모두가 참여한 가족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있었다. 다문화 가족도 만날 수 있었다. 반가운 인사를 시작으로 교육복지안전망센터의 역할과 미션 수행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그리고 가족들은 힘차게 지도를 따라 코스로 걸음을 옮겼다.(아니, 달려갔다.)

이런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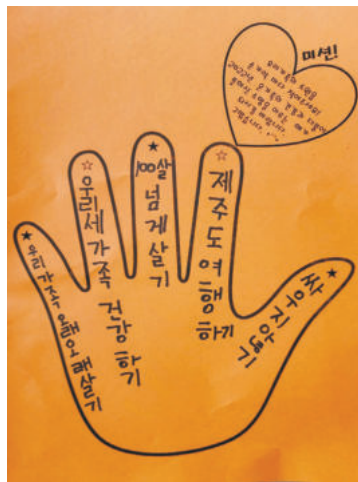
“선생님 이거 너~무 재미있어요!” 참여한 가족들마다 한결 같이 ‘재미있었다.’ 말씀해 주셨다. 아이를 홀로 키우시는 어머니는 본인이 교육복지안전망센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셨다. 그리고 학생과 할머니가 참여했던 한 가족… 할머니는 “코로나19로 얼마 전에 가족 하나가 죽었고, 나조차도 애 키우면서 힘들었는데 오늘 아이와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내니 너무 좋고, 뭐라 말해야 할지…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가족미션수행



우리가족 만들기



우리가족 소원

교육 회복의 출발은 가족부터

가족 나들이는 봄 130가족, 가을 93가족이 참여하였고, 100%의 긍정적 만족도를 달성하였다.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복지안전망사업이 작게 쏘아 올린 공이었다. 그리고 이 공은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으로, 누군가에게는 치유로 각자의 방식과 상황에 맞게 다가갔다.

우리는 생각했다. ‘안정적인 가정생활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참여했던 가족들이 바랐던 소원처럼 그들의 행복을 바란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의 가족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다음을 준비해본다.

글·교육복지사 유평화

마음을 이어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다국어교육,

08 교육회복에 세계를 품은 꿈을 더하다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언어의 힘

세계가 하나로 이어진 글로벌 시대, 우리 학생들이 다양성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는 의사소통 과정 속에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고 관계성을 강화하는 마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우리는 상호연결시스템이 잠시 멈춰지고 소통과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교육적 가치를 회복하는 관계의 힘을 다시금 발휘하기 위하여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는 다국어 기반의 상호소통으로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국어 의사소통으로 더욱 돈독해진 관계의 힘

본원에서는 관내 고1~2학년 중 희망학생들을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2주간 「2022 어울림 진로 연계 다국어 집중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다문화 및 탈북학생들의 외국어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누구도 소외됨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진로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로캠프와 연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희망강좌 수강신청을 받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초급과 중급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외국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하여 취미, 꿈, 세계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주 2회 두 시간씩,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생생한 다국어 수업이 운영되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온라인으로 만나는 다국어 수업

화면을 통해 만나는 원어민 선생님과 다른 학교 친구들이 처음에는 낯설기도 했지만, 수업을 함께 하는 동안 점점 친해지며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진로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영어로 말하기에도 자신감이 생겨서 좋았어요.

- OO고 A학생 -

서로를 격려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힘

본 과정의 마지막 날인 11월 4일에는 참가학생 모두가 본원에 모여 다국어 기반 1일 진로캠프 「동사형 꿈」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진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성격유형검사 및 흥미 만다라트를 통해 자기이해의 시간을 갖고, 학생들 각자 꿈꾸는 미래를 일깨이기 위한 진로설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미래를 그려보는 「동사형 꿈」 진로캠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 real talk! talk!



오후에는 원어민 선생님들과 만나 생동감 넘치는 말하기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나라별 문화 이야기를 시작으로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임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그려나가고 싶은 미래에 대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발표하며 서로의 꿈을 격려하는 과정 속에 각자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선택한 일본어 수업
이라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앞으로도 일
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일러스트레
이터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 △△고 B학생 -

앞으로도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는 다채로운 다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 누구나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각자의 꿈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회복의 진정한 의미가 구현되고 행복한 인천교육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글·교육연구사 김정원

PART

3

학생 성공의 기본을 다지는 교육회복



교육회복이 때 너와함께

01

인천명현초등학교

여름방학 맞춤형 학습반올림으로 교육회복에 다가가다

계속되는 코로나,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난 2022년에는 거리두기도 대부분 해제되고 끝이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명현초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2019년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회복력”이라는 대전제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많은 부분을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가운데,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좋은 기회! 여름방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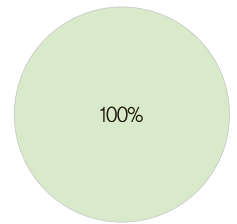
2022년 명현초에서는 모든 학급에서 학습반올림을 운영하면서 학급에서의 10차시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으로 돌려 방학 중 학습반올림을 계획하였습니다. ‘방학 중 학교에서 학습반올림을 운영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6월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약 20%의 학생(60여명)이 참여를 희망하였습니다. 여름방학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학생들의 학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4주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참여하고픈 학생들이 있고 가르칠 교사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인 여름방학이었습니다.





? 겨울 방학 때도 이와 같은 맞춤형 학습 반올림이 운영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 네, 참여하겠습니다.
- 아니오,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맞춤형 학습반올림의 운영방안?

6개 학년의 학생들이 참여를 희망하여 우선 희망과목인 국어와 수학(1~2학년), 수학과 영어(3~6학년)를 학습반올림 교과로 선정하여 교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피해서 오후 시간대에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시기를 방학 초 2주, 방학 말 2주, 방학내내 등으로 나누어 최종 참가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희망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파악 후 학급을 구성하여 여름방학 학습반올림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교감선생님의 아이디어로 더운 날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뛰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안전하게 학교길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맞춤형 학습반올림으로 교육회복에 다가가다

7명의 선생님들과 55명의 학생들이 4주 동안의 여름방학 4주 동안 학습반올림으로 각자 희망 일정에 따라 방학 초, 방학 말 또는 방학 내내 부족한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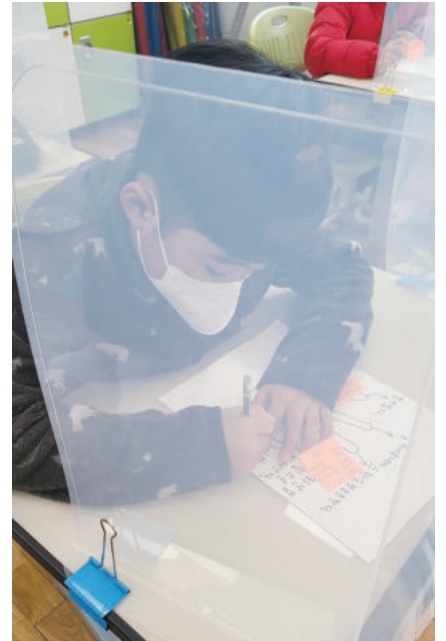
분을 채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별 성취수준이 다양하여 학급을 나누어 2~5명으로 구성 운영되었고 이러한 운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동안 배움을 모두 채울 수는 없지만 수업 마치고 하교하는 6학년 학생의 '공부가 재미있기 시작했어요.'라는 한 마디는 코로나로 커진 학습 격차,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우리학교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학교를 둘러싸고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회복의 많은 대상 중, 우리 명현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력과 학습회복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글·교사 서영배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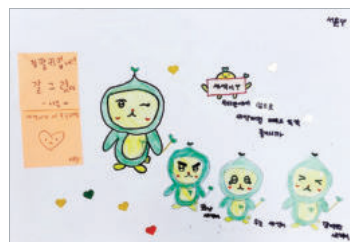
인천별빛초등학교

별빛이 씨앗되어 마음이 자라는 큰 별들의 3월 이야기



나를 바로보고

지난 3월 한 달의 우리 반 이야기다! 2022년 3학년은 코로나19 시작과 함께 입학한 학년이다. 이 아이들에게 학교란 가림막으로 나뉘어진 공간,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로 나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곳,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는 곳이었다. 어서 빨리 아이들은 '나'를 찾아야만 했다. 우선 감정이 무엇인지 배우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모두가 다 다룰 수 있음을 배웠다. 다음으로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만의 감정 캐릭터를 발견하고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과 단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며 조금씩 아이들은 '나'를 바로보기 시작했다.





너를 바라보니

아이들은 ‘나’를 바로 보니 ‘너’를 바라보고 싶어졌다.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친구의 마음과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리스너’가 되어보고, 나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스피커’가 되어보았다. 매일 아침 친구의 마음을 물어보고 공감하는 감정인사 활동으로 서로의 기분을 살피며 하루를 하였다. [실패해서 좋은 날]을 통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슬픈 친구들에게 공감하는 말,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하여 함께 극복하며 나아갔다. 교실은 ‘너’와의 대화로 조금씩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였고 이제 정말 조금은 교실다워졌다.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졌다

‘너’와의 대화가 시작되니, 하나, 둘 함께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 ‘우리’가 되기에 알맞은 시간이 되었다. 우선 우리 반 노래를 만들어보았다. ZOOM회의로 우리 반 노래 가사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낱말을 브레인라이팅하고 워드클라우드를 표현하였다. 원하는 멜로디를 서로 공유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노래를 선택하여 우리 반 노래가 완성되었다. 다음으로 우리 반 노래로 우리 반 체조를 만들었다. 꼭 해보고 싶은 체조 동작을 한 가지씩 표현하고 체조 원리에 맞게 재구조화하여 우리 반만의 멋진 체조가 완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바람과 의미를 담은 우리 반 캐릭터를 만들어보았다. 아이들 모두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가림막 없는 교실이었다. 바람대로 2학기부터 교실에서 가림막이 사라졌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 반 아이들의 마음 속 가림막도 사라졌다.

글·교사 조성현

03

인천부평서초등학교

토닥토닥 괜찮아, 어울림으로 시작하는 마음 회복

코로나19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마스크를 쓴 채 다른 친구들과의 소통과 어울림이 없었던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회성 함양 및 공동체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본교는 교사-학부모-학생이 서로를 터놓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서로를 토닥이는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소소하게 운영하였다. 아주 작은 씨앗을 틔운 울해를 기점으로 언젠가 다시 일상을 되찾아, 살아있는 학교가 되기를 꿈꾸어 보면서 다음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어깨동무로 나가는 우리(학생 정서 회복)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하지 못했던 활동 중 가장 하고 싶어 했던 활동이 바로 체험 학습과 어울림 프로그램들이었다. 방역의 위험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해 본교는 마을연계 체험학습, 도농교류 체험학습, 전래놀이 프로그램 참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극 관람, 오페라 공연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민·관·학이 함께한 부평 전통시장 체험 프로그램과 도농교류 체험학습이었다. 부평 전통시장 체험프로그램과 도농교류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교에서 벗어나 다양한 추억을 쌓으며 공동체감을 형성하였다. 또한 학교로 찾아오는 오페라 공연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극 관람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음악적 감수성 및 문화 체험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발맞추어 나가는 우리(학부모 신뢰 및 정서 회복)

학교 교육에 있어 중요한 주축인 학부모님들도 코로나19로 인해 닫혀버린 교문을 보면서 학교와의 단절을 이해하면서 못내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으셨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 교육 회복에는 학부모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교는 학부모·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소통협의회를 조직하여 다양하게 소통하고자 노력하였다. 더 나아가, 학교를 개방하는 첫 신호로 학부모 공개수업 및 학부모 상담을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학부모님들은 높은 참여도를 보이며 학교에 대한 신뢰를 많이 회복하였다. 또한 학부모님들의 정서 지원을 위해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우리(교사 정서 회복)

현장에서 함께 고생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학교 차원에서는 소소하게나마 회복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외부체험활동 프로그램을 1학기부터 예산도 지원해 드리며 학년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학교 공간이 좁아 협의할 공간조차 여의치 않아 많은 부분 단절되었던 학교에서 외부체험활동을 재개함으로써 서로를 치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위의 사례처럼 작은 교육 회복 프로그램들 모여 서로를 토닥이고 일상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나와 너를 넘어 우리의 일상을 찾게 해줄 교육회복의 멋진 내년을 기대해본다.

글·교사 유호성

교육회복의 장 「석천 글로벌 투게터 페스티벌」



인천석천초등학교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포용적인 세계시민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세계 문화 체험의 장이 진행 중이다. 학생들은 학년의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의 문화를 놀이,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김림자 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사회성, 건강 등에 생긴 교육결손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회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외로 현장체험학습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뛰놀며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싶었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인천석천초등학교는 학생 1,150여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과대학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활동 제약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회복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행사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지난번에 에버랜드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제대로 즐길 수 없었어요. 우리의 희망조사에 따라 결정된 장소라 누구를 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한 번 더 체험학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정말 좋아요.”라고 말하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4학년 학생도 “우리도 언니, 오빠들처럼 체험학습을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아쉬움이 컸었는데, 이번 축제에서 친구들과 같이 춤도 추고, 게임도 하고, 가방 걸이 만들기도 하면서 아쉬움이 싹 사라졌어요.”라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또, 인천석천초등학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학부모 공개수업을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3년 만에 열린 학교와 교실에 많은 학부모들이 찾아왔고, 참관 소감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
아이가 입학한 후 처음으로 학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이의 학교 생활이 너무나 궁금했는데 안전하게,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니 좋고 또 안심이 되었다.

— 3학년 학부모의 참관 소감 —

이 밖에 두드림 학력향상교실,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한 진단과 맞춤 보정, 협력교사를 활용한 co-teaching, 학습 반올림 등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볼 수 있었다.

끝으로 김림자 교장은 “교육회복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학교의 모습을 되찾을 뿐 아니라, 그간 부족하거나 아쉬움이 있었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의 역량 신장을 위해 석천 교육공동체가 함께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글·교사 고정창

다시 쓰는 행복 이야기, '모두가 별이다'

복적복적, 외글외글, 웅성웅성, 우당탕탕. 학교가 다시 살아났어!

방긋방긋, 싱글벙글, 까르르. 별들이 다시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2022년 학생들은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 건강의 교육 결손을 회복하고, 교육공동체는 다 함께 미래 교육을 향해 힘차게 도약한다. '모두가 별이다' 송일의 별들이 쓰는 행복 이야기를 소개해 본다.

Q1. 코로나로 학교에 오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학습의 어려움과 심리적 우울감을 호소하였다. 송일초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였나?

A1.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담임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학습 진단과 함께 방과 후와 방학 중 '학습 반올림'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을 지도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회복과 안정을 위해 인천학생상담자원봉사자사회와 연계하여 1~6학년 소그룹 집단 상담을 진행하였다. 방과 후

에는 개인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이 편안히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상담사가 상담실에서 학생들을 맞아 주었다.

Q2. 학생들의 사회성과 정서 회복을 위한 송일초의 특색있는 활동이 있다면?

A2.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활동을 들 수 있다. 송일오케스트라는 2016년 창단하여 매년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으며, 송일합창단은 2019년 인천어린이합창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자랑한다. 2022년 교육회복과 함께 다시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과 조화로운 연주를 들으며 학생들은 편안함과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합창단이 선사하는 노랫말은 학생들로 하여금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돕는다. 문화 예술의 힘으로 학생들의 일상이 따뜻하고 풍성해 진다.



Q3. 학생들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고 해결하는 ‘보이는 라디오’의 인기 비결은?

A3. ‘보이는 라디오’는 2주에 한 번 아침 등교시간에 방송한다. 학생들이 손수 적어준 사연을 소개하고 신청곡을 틀어준다. 평소 부끄러워 말하지 못했던 일, 미안했던 일, 사랑 고백 등 학생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학생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는 것 같다. 진행자들은 학생들의 사연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따뜻한 조언을 건네준다. 가끔은 선생님의 말씀보다 가까운 친구들의 이야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 학생들은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해결하며 미래의 주인공으로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다. 이것이 ‘보이는 라디오’의 인기 비결이다.

Q4. 교육회복은 물론, 나아가 미래교육으로 도약하는 ‘송일 미래스쿨’은 어떤 활동인가?

A4. “인공지능과의 시간이 재밌었고 더 좋은 로봇을 기대하게 돼요”, “제가 했던 프로그램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송일 미래스쿨’ 체험 후 응답한 내용들이다. ‘송일 미래스쿨’은 코딩을 통해 사물을 움직여 보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가는 체험활동이다. 1학기에는 4~6학년 학생을 대



으로 코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학기에는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놀이 위주의 언플러그드 코딩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초 단위로 정보의 공유와 확산이 이루어지는 현재 및 미래 사회에서는 혼자서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할 수 없고 그것이 유의미하지도 않다. 오히려 재능과 강점을 공유하고 협력할 때 더 높은 시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송일 미래스쿨’은 학생 간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생각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창의적 산출물을 만든다는 점에서 자신과 미래의 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 가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송일 별들의 Mini Talk



김승민
6학년

초등학교 생활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활동을 고민하다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래서 나도 멋진 무대를 성공시켜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케스트라에 입단하였다. 단원들과 연주를 하면서 점점 합이 잘 맞추어지는 모습에 성취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았다. 박수를 치던 입장에서 박수를 받는 기분이 되어 보니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주 할 때는 힘이 들었지만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치고 받는 박수는 달콤했다. 앞으로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많아져서 더욱 웅장한 연주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황선영
학부모

‘생각’은 나는 좋은 부모로서 아이와 잘 지내고 싶다. ‘현실’은 낮에 버려두고 방에 반성할 때가 있다. 「어른 이그라쳐」 연수를 통해 아이의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감정이란 것 또한 알게 되었다. 내 아이 기질을 알고 엄마인 나를 알아가며 아이에게 자존감, 정서적 안정감, 간접 경험을 긍정의 힘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행복한 부모의 시간 덕분에 지금 아이와 의견, 감정을 잘 교류하며 좋은 관계 형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태민
5학년

‘송일 미래스쿨’에서 미래사회에서는 AI가 인간들을 대신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IT 직업이 더욱 많이될 것임을 배웠다. 한 예시로 저절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어 보았는데 이 체험을 통해 나는 AI 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스포츠크레이’날이다. 코로나 이후 2년만에 하는 ‘스포츠크레이’라서 기대감이 컸던 만큼 더욱 재미있었다. 특히 피규, 이어 달리기, 단체 줄넘기, 단체 경기 등 합동 종목들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영주
교사

원격수업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역량에 대한 논의, 에듀테크에 대한 새로운 조명 등 낯선 코로나의 시간을 거쳐 학교는 일상회복, 교육회복의 시간으로 접어들었다. 교실은 다시 활기를 띠었고, 학생과 선생님은 미소를 머금었다. 코로나라는 어둠의 터널을 지났기에 일상회복의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다. 우리 반 학생들과 함께한 아침 등교 감정 출석부, 격려 사위, 생일 파티, 매주 금요일 학급회의, 감사 나누기로 우리는 더욱 성장하였고, 매일 행복했다. 송일에서 함께하는 우리는 모두, 어둠을 통과한 후 더욱 밝게 빛나는 별이다.

글·교사 윤주영, 최재희 |

06

인천장아초등학교

학습반올림으로 우리 함께 가자



우리가 도와줄게!

학기가 시작되기 전 교사 다모임 시간에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많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학생들의 정서적인 결핍부터 학습결손까지 이야기를 나눌수록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으며 교사로서 학생들의 학습결손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담임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전담 선생님들까지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우리 함께하자!

학습반올림은 한 학급도 빠짐없이 전 학급에 골고루 나누어 진 행되었고 각 학년 영어전담선생님께서 영어를 담당해주셨다. 대면 지도, 원격지도, 과제제시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 었고 교과서, 학습지, 구체물, 도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지도 방법을 찾아 지도해주셨다. 또한, 자가격 리로 인해 단기적 학습결손이 생긴 학생의 경우 학습 부담이 생 기지 않도록 학습반올림을 통하여 보충 지도를 실시했다.

더불어 정서회복까지!

학급별로 요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담임선생님과 함께하는 시 간을 가지면서 학습적인 보충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까지 얻 을 수 있었다. 보충 지도로 학습력이 점차 향상되면서 학생들의 자 존감이 회복되고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높아진 학생 들을 세심히 관찰하고 대화하는 더 보람된 시간이 되었다. 담임선 생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으로 사제간 친밀감이 형성되 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학습에 추진력을 얻어 열심히 노력 하는 모습들이 관찰되었다.

학교를 믿어요!

학습반올림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으로 향상되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감 이 높아지면서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 되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하나 되 어 학생들의 교육 회복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처럼 노력한다면 코로나로 인해 그동 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차근차근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글·교사 안수현 |

심리·정서 및 체력 회복을 위한 작은 섬 학교의 마음 맞닿음 공동체



다리가 놓여 육로 연결은 되어있지만 전교생 25명밖에 없는 작은 학교, 산과 바다가 매일 눈앞에 펼쳐져 있어 자연과 벗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교에서도 교육 회복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는 과제였다. 소인수 학교이다 보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수업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어왔으나 상황상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의 문제 및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교육 회복의 과제라 생각했다. 그에 따라 섬 지역의 지역적 특색과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려 우리 학교만의 마음 맞닿음 공동체 활동을 운영하게 되었다.

학교 안 마음 맞닿기

섬 지역 학교이지만 텃밭에 직접 무엇인가를 가꾸어 본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별로 없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생태 감수성 향상과 함께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도록 학교 텃밭 가꾸기 활동을 정서 회복의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학교와 학교 주변 생태 탐방하기를 통해 친구들과 서로의 마음을 맞닿아 보는 시간을 가지며 교육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학교 텃밭 가꾸기 활동은 텃밭에서 함께 심으면 서로의 생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 식물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씨앗과 모종을 텃밭에 직접 심어보았으며, 올봄 가뭄이 심할 때는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 활용하는 등 학생들이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텃밭을 관리했다. 또한 직접 수확한 작물로 샐러드 등의 음식을 만들어 친구들과 나누어 먹는 활동을 통해 마음의 거리를 좁혀 나갈 수 있는 활동이 되었다.





학교 주변 생태탐방 활동으로는 학교 안에 있는 다양한 나무와 식물들을 살펴봄에 늘 보던 ‘나무와 풀’에서 이름이 있는 각각의 생물임을 알게 되어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학교 주변 석모도 나들길의 갯벌에서 다양한 염생식물 탐방을 통해 주변의 생물의 다양함을 느꼈고 학생들이 직접 탐사하며 어울리는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학교 밖 마음 맞닿기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학교이지만 스쿨버스 등하교나 학교 주변의 위험한 찾길때문에 평소 우리 학교 학생들의 신체 활동은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신체·건강을 위한 활동은 교육과정과 방과후학 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수업이 전부인 학생들이 많다. 따라서 섬 주변 자전거 라이딩 활동 등 마을 내 다양한 신체활동이 가능한 곳을 활용해 교육 회복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3학년 이상 학생들이 모두 탈 수 있는 자전거를 구매하여 학교에 비치하고 자전거 타기 연습을 틈틈이 하여 라이딩을 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거쳤다. 교사와 함께 섬의 둘레길을 라이딩하는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성장해 나가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또한 석모도 외에도 고통도의 둘레길을 함께 자전거 투어를 하며 환경화 활동을 하는 플러깅에 동참하는 등 학생들도 자전거 타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외에도 강화도 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에서 교육과정 내 계획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몸이 건강해지고 서로 간

의 사회적 관계성을 높일 수 있었다.

마음 맞닿음 공동체를 운영하며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들이 그 간 결손되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과정이 되었고, 앞으로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더 큰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과 시간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글·교사 최희진

08

선학중학교

채우고! 나누고! 함께라서 행복한 선학 공동체

행복 하나 -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선학 공동체

새 학기~ 새 친구들~, 너~무 어색하죠? 선학중 학교는 이 서먹함과 어색함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 학기 초 전교생 관계 형성 서클을 진행합니다. 관계가 잘 형성되면 배움 중심 수업의 꽃인 모둠 활동을 더욱 더 잘할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학교생활이 가능합니다.



학기초 전교생 관계 형성 서클



행복 둘 -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선학 공동체

화목한 선학 질문 해결 교실

화요일, 목요일에는 선학 질문해결 교실이 열립니다. 그동안 공부하다 잘 모르는 부분을 선생님들께 맘껏 질문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인천대학교 대학생 선생님과 우리 학교 선생님들 모두 4명의 선생님이 함께 계셔서 부담 없이 맘~껏 질문할 수 있는 행복한 날입니다.



시험대비 자기주도 학습실

학교에서 먹는 라면의 맛을 아시나요? 선학중학교는 시험 1주일 전부터 자기주도 학습실이 운영됩니다. 밤 8시까지 선생님의 입장 지도 하에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간식으로 주시는 라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맛이 있습니다. 시험 때도 친구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1학년 교사 멘토링 교실

코로나 3년째! 우리 1학년 학생들의 학력이 많이 저하되는 원인이었습니다. 이의 극복을 위해 선생님들은 방과 후 시간을 쪼개어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또한 선생님을 믿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채우고! 나누고!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 선학중학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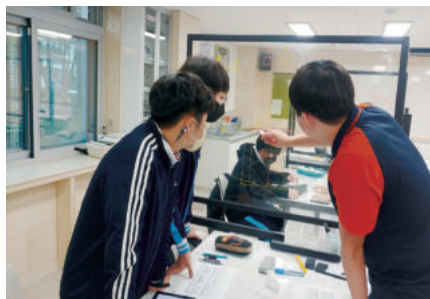


2학년 교사 멘토링 교실

수학 선생님께서는 수행평가 기간에 가끔 수학 멘토링 교실을 개방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수학 시간은 친친샘도 함께 들어오셔서 다문화 친구들을 전담해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3학년 교사 멘토링 교실

선학중학교는 1학기에 총 12개의 교사 멘토링이 개설되어 14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함께 배움을 나눴고, 여름방학 8개, 2학기에는 9개의 교사 멘토링이 개설되어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는 학생들,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무학년제 멘토링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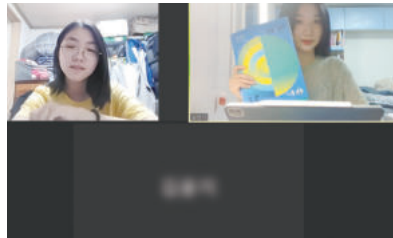
행복 넷 - 마을과 함께 행복한 선학 공동체

여름방학 마을 학교 : 마을 방과 후 교실

방학 중에도 점심을 준다고? 선학중학교에는 마을 선생님들이 상주해 계십니다. 자유학기 수업은 물론, 여름방학 기간에는 학교 선생님들은 교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마을선생님들은 마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니다. 특히 마을 방과 후 요리반이 만든 음식을 여름방학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이 점심으로 먹을 수 있어 일석이조랍니다.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교실

책까지 사 주는 학교가 있대구요? 선학중학교는 인천대학교와 MOU를 맺어 상부상조 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 담당 선생님이 대학생 선생님들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후,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국어, 영어, 수학 예비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1:1로 매칭하여 주십니다. 학생은 개인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38명의 학생들이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고, 원하는 교재도 1,2학기에 각각 한 번씩 멘토, 멘티에게 제 공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 넷 - 아침머고 교실 '아침부터 행복한 선학 공동체'

아침 머고?

선학중학교의 아침은 다른 학교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바로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월드비전의 지원을 받아 아침 머고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빵도 직접 굽고, 계란 후라이도 하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 먹는 토스트는 너무 맛있습니다.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친구들이 학교에서 아침 먹는다고 집에서는 아침을 안 먹고 간다고 합니다. 인기 절정의 아침머고 교실~ 이런 선학중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글·교사 전수희

09

청천중학교

별 같은 눈빛을 담아 뜨거운 열정을 품고!



기초학력 방과후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기초학력 정도를 점검하였다.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방과후학교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 영어, 수학 기초 학력반을 개설하였다. 낙인 효과와 학습된 무력감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국어는 '늘품반', 영어는 '비전반', 수학은 '피타고라스반'이라는 이름으로 강좌를 개설하였다. 교내 선생님들이 대부분 수업을 진행하였고, 각 학생마다 학습이 결손된 부분을 파악하여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한 결과 53%이상의 학생들이 기준점수에 도달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예술·체육 영역 방과후학교

체육 영역은 피구, 족구, 축구, 풋살, 농구, 배드민턴, 댄스반 등에 9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 여러 방면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다양한 운동으로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어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예술 영역은 통기타, 우쿨렐레, 바이올린, 아트앤드로잉반 등을 운영하였다. 음악 영역은 수준 높은 교내외 강사님의 지도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악기와 음악을 접할 수 있었다. 미술 영역인 아트앤드로잉반의 경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아이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 긍정적인 피드백도 교환하면서 건강한 경쟁심리가 작용되어 다같이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0

부평공업고등학교

일취월장 부공인

하나, 군특해병! 드래곤보트 대회출전

드래곤보트 승선 준비

경인 아라뱃길 위에 떠 있는 드래곤보트, 폭은 짧고 길이가 긴 나무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복재비가 둥~둥~둥~ 리듬을 타면 노잡이 10명은 합심하여 영차~영차~영차 노를 저어간다.

노는 팔의 힘이 아니라 몸과 허리의 힘을 사용해야 더 폭발적인 추진력을 가질 수 있으며, 힘 좋은 사람이 자신의 가진 능력을 모두 쏟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한 사람의 능력에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다.



짠 경인 아라뱃길

다른 팀들은 경기 후 행운을 기원하기 위해 몸에 물을 적시기도 하는데, 우리 군특해병은 경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인아라뱃길 강물에 풍덩~ 풍덩~ 풍덩~~3번 몸을 맡겨야 했다. '드래곤 보트는 왜 이렇게 무게중심이 높은 거야?', '바닷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짠거야~.', '필승! 잘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는 달리 의욕이 과욕으로 되어간다.

우리는 해병

달관했다고 해야 할까? 어깨에 힘이 빠졌다고 해야 할까? 우리는 해병이 되어갔다. 드래곤보트 대회 결승 진출, 최종 3위 입상, 두 손 불끈 헬스장이 친구, 물속에서 복채 들고 당황하던 군특 선생님, 우리가 만들어 낸 성과다. 필승~!



둘, 누구나 처음은 어려워

이게 뭐지?

실습 시간 동안 처음 써보는 도구, 어려운 수업 내용. 너무 어려운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이 회로는 무슨 내용일까?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까? 궁금증이 커져만 간다.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도면은 물어도 봤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한 번 해보자

어? 어? 하는 사이에 수업이 빠르게 지나갔다. 손을 들었다. 선생님 이해가 안됩니다. 선생님은 웃으시며 처음부터 설명해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아 이제 도면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선도 연결해보고 내가 직접 만든 회로에 전원도 들어오도록 해보자. 원하는 대로 연결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니. 한 번 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역시나. 처음 시도는 실패. 그렇지 한 번에 되는 건 어려운 걸 거야. 다시 이렇게도 연결해볼까? 선생님 어느 부분 연결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 와. 여기가 잘못 연결되어 있었네. 다시 볼트를 풀고 올바르게 연결했더니 짠. 전구가 불이 들어왔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도 우리가 집에서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 한 번은 실패했지만 두 번은 하지 말아야지! 스위치로 켜는 전구 동영상을 찍어서 친구들에게도 보여줘야겠다. 처음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보람찬 시간이었어!



글·교사 백정학, 설정희

11

부평여자고등학교

‘교육회복’을 위한 ‘함께하기’

선후배와 함께

또래 학습 지원단 프로그램

학습 결손 회복과 학습 자존감 향상을 위해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후배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과목별 학습 노하우를 공유하고 고민을 상담해주는 ‘또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밖에도 공부에 지친 마음을 다독여 줄 수 있는 따뜻한 글귀와 편지를 서로 공유하는 ‘또래 학습 마음지원단’ 활동을 통해 서로 용기와 격려를 주고 받으며 ‘함께 성장’을 다짐하였다.

“나도 1학년 때 공부 때문에 힘들었지만 2학년 때 노력해서 극복한 내 얘기를 들려주니 1학년 후배가 무척 고마워했다. 정말 보람됐다! 내가 후배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다.

— 2학년 이** 활동 소감문 중 —



졸업생과 함께

대학생 선배와 함께하는 학습 멘토링 집중 프로그램

본교를 졸업한 대학생 선배들이 1, 2학년 학생들의 학습 멘토가 되어 1주일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만나 1:1, 소집단으로 학습 고민을 상담해주고, 부족한 교과 학습 내용을 직접 지도 해주었다. 총 20명의 선배 대학생 멘토가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주중, 주말을 이용해 후배 멘티들의 학습을 꾸준히 도와줌으로써 학생들 모두 학습 동기가 고취되고 학력도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단지 누군가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부를 하는 데 엄청난 위안이 되고 힘이 났다!

— 1학년 최** 활동 소감문 중 —

“학원을 다니기에도 실력이 너무 모자란데, 나를 위해 여러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해주는 선배 언니가 너무 고마웠다. 나중에 나도 멘토가 되어 후배들을 도와주고 싶다.

— 2학년 최** 활동 소감문 中 —

선생님과 함께

함께채움 프로그램

학습 결손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채움’예산 7,000만원을 활용하여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동안 62강좌가 운영되었다. 수익자 부담 전혀 없이 학생들은 각자 원하는 교과보충학습 강좌, 특기적성 강좌, 진로컨설팅 강좌를 선택 수강하였으며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수준과 수요에 맞는 수업을 통해 교육 회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문화예술과 함께

문화예술 감수성 회복 프로그램

시인, 화가, 서예가 등 지역 예술 인사를 초청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문화예술체험활동 운영하였다. 더불어 학생 중심 월간 문화행사 ‘월간소락’, 창의적 디자인 전시회, 공간 스토리 사진전을 실시하여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감성을 일깨우고, 타인과 소통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학생들의 행복감을 높였다.



글·교사 이지은 |

12

선인고등학교

함께채움으로 교육회복의 길을 찾다



역사 탐방 장소 선정

위드 코로나 함께채움으로 길을 찾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펼쳐지고,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 도입되는 등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학교 교육현장에 무수한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 시국을 2년 이상 겪은 이후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학력격차 심화와 기초학력의 저하일 것이다. 또한 학교와 가정에서 케어 받아야 할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원 받지 못해 교육소외로 이

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의 교육회복 프로그램인 함께채움을 활용해 담당 교과인 역사 지식을 함양하고, 학생들과 소통활동, 체험활동 등으로 연계해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성장시킬 방법을 모색하였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잘 나오지 못해 발생한 교육격차 해소, 기초학력의 회복과 사회성 함양,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공고히 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역사 탐방 기획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역사활동으로 교육회복에 다가서다

함께채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역사에 대해 설명하자, 직접 우리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장소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학생들의 회복을 위해 성공 경험을 더해주고자 체험학습을 가보기로 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지역사회 역사와 관련된 장소를 자유롭게 발표하고, 실현 가능한 장소,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 그다지 멀지 않아 체험활동이 용이한 장소 등의 우선순위를 학생들 스스로 정해보게 했다.

학생들은 우리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강화도로 체험활동 장소를 정하고 핸드폰과 인터넷 지도를 보고, 직접 체험학습 코스를 구성해 보았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하루 동안의 체험활동을 계획할 수 있었다.

토요일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직접 체험활동 코스와 장소를 기획해서인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학생들이 일찍 나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전교육을 하고, 학생들과 강화도로 향하는 길에 창밖으로 강화대교와 풍경들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탄성을 내질렀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며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체험활동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는 학생에 말에 지금 학생들이 참 불행한 세대라는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강화도에 도착해 학생들이 정한 코스대로 전등사, 고려궁지, 신미양요 격전지인 초지진과 덕진진 등을 돌아보았다. 학생들은 대자연에 어우러진 우리 역사 현장들을 탐방하며, 교과서로는 하기 어려운 다양한



역사 탐방

체험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배울 수 있었다. 학생들은 체험활동을 통해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느낌표를 더해 갔으며, 무슨 일이든 도전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졌다.

교육회복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될 수 있길...

함께채움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역사교사의 꿈이 생겼다는 학생의 소감을 보고, 교육회복지원사업을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학생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처음 교직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나의 초심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사이다. 학생들이 교육회복을 필요로 하고 있고,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현재 교육의 중요 과제가 된 지금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초심으로 교육회복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찾아 줄 것을 다짐해 본다.

역사 탐방 장소 선정	역사 탐방 기획	역사 탐방
• 브레인스토밍으로 의견수렴 • 모여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학생 • 회의를 통해 가능한 장소 선정	• 역사 답사 제작 기획안 작성 • 역할 분담 및 필요 물품 구비 • 이동 동선 및 랜드마크 설정	• 사전 구성된 모둠 구성(소외X) • 학생 안전교육 실시 • 학생 답사 미션 부여로 참여도 ↑ • 답사 소감 발표(페들렛)

글 · 교사 최동석 |

13

인천초은고등학교

소중한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교육회복

교육회복사업은 어느 한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다.
결손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

교육회복은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다.
학교는 서로 만나며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소통 공간이어야 한다.

교육회복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필요하다.
교육활동의 계획 단계에서 학생을 참여하게 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나는 교육활동을 통해
서로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공간조성 사용자 참여 설계

모두가 돌보는 기초학력보장!

학생 필요에 부합하는 학습코칭! 학습자신감 UP!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최소성취수준 보장, 학습보충지원, 정서지원,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4개의 부서에서 각각 운영하였다. 최소성취수준 미도달 범위에 있는 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국어·영어·수학 교과 학습을 보충 지원하고, 학업 및 생활계획 등의 정서 지원, 문해력의 기초가 되는 '읽기, 말하기, 쓰기'를 종합적으로 지도하였다.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개별 맞춤형 '줄탁동시(掬탁同時) 블렌디드 학습코칭'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이 직접 희망하는 교사에게 강좌를 요청하고, 이를 교사가 수락하면 강좌가 개설된다. 학생 5명 내외로 그룹을 조직하여, 교과, 진로, 학업계획,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코칭을 받는다. 학생이 주도하여 기획하고, 학생의 필요에 의해 개설되므로 참여율 및 만족도가 높다.

'인성ON(溫)실'에서 마음을 열다

학교는 서로를 만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인성친화적 공간이어야 한다. 이에 각 학년 층에 있던 기존의 독서카페를 환경 개선하여 인성친화적 또래활동 공간으로 조성하였다.(시교육청 인성친화적 학교 공간 조성 사업 연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학교공간조성 학생추진단'을 조직하여 학생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하였다. 학생들이 원하는 '학업, 쉼, 놀이'를 모두 할 수 있는 또래활동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좌식 공간은 바닥에 난방을 넣어, 편하게 눕고 쉴 수 있어서 인기가 많다. 또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인생한컷' 포토존에서 학생들이 여러 소품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어울리며 닫혀있던 마음을 서서히 열어갔다.



또래 활동 공간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다!

서로에게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려고 노력하지만, 학생들의 마음은 여전히 힘들다. 심할 경우 학교 생활 부적응, 위기관리 대상 학생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 관리 및 관계 회복을 위해 '애플데이(사과데이)', '토닥토닥 마음 카드 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친구나 선생님께 감사나 사과의 편지를 쓰면 토래상담자나 인문사회홍보단 학생들이 편지와 간식을 배달해 주었다. 다른 프로그램보다 참여한 학생 수가 많았는데, 그만큼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여 우정을 돈독히 하고, 사제 간의 갈등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감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학생과 담임교사의 '인생한컷' 참여 모습

책을 통해 마음의 힘을 키우다!

코로나19가 기승일 때는 학교 도서관도 문을 닫았다. 좋은 독서 습관이 형성되기는 커녕 그나마 있던 독서습관마저도 무너졌다. '북빙고', '북키링 만들기', '열쇠의 행방'이라는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거나, 선생님께 찾아가서 미션의 단서를 알아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을 알게 되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같이 활동하며 바쁜 일과 중에 한 번이라도 더 웃었다고 하면서 즐거워했다. 학생과 교사 모두 치유되는 것이다. 모두가 마음의 힘을 키우도록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하는 또 다른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고민해 본다.



Talk Talk

독서활동 홍보단 박두선(1학년)

'북키링 만들기'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에 있는 문구나 일러스트 레이터를 그려 키링으로 만드는 행사였습니다. 책과 친해지 않은 요즘 도서관에서 이런 행사를 하며 책과 친해지는 활동을 하여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키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지만 자주 알지 못하는 책의 글을 써서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그 글을 간편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다음 행사가 기대되었습니다.

'북빙고'는 미션을 수행하는 빙고 게임 활동이었습니다. '학생중으로 대출하기', '보건쌤과 가우바우보 하기', '선미쌤과 물병 세우기',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께 사인 받기' 등의 미션을 수행하여 3빙고를 완성하면 선물을 주는 행사였습니다. 미션을 수행하면서 평소 많은 교료가 없던 선생님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더 설렘니다. 또 새로운 책들을 알게 되어서 결말에 대한 기대감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는 교실에서 보내는 시간 다음으로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길고 또 행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친구들도 도서관에 자주 오고, 책과 더 친해지면 좋겠습니다.

글·교사 이승자

14

인천청인학교

행복한 학교, 즐거운 교실 특수교육은 청인처럼



초등 1과정

즐거운 오늘의 기억이 오래도록 기억되길

감염병의 확산으로 외부 활동의 제약이 많아진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줄 어린이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풍선아트, 페이스 페인팅, 청인 놀이 공원, 팝콘과 솜사탕 만들기, 친구들과 뛰놀며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한 곳에 모아 멋진 협동화 나무를 만들고 보니 완벽한 어린이날이었다.

여름방학이 지나 무거워진 몸과 마음을 가벼이 해줄 '오고 싶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운동장에 설치된 분수 매트에 뛰어든 아이들은 물총을 쏘며 서로의 더위를 날려주었고, 매미 소리를 따라 도착한 강당에는 한여름날의 캠프장이 열려있었다. 모두 웃으며 놀다 보니 눈 깜빡할 새에 여름이 지나고 있었다.



초등 2과정

모두가 빛나는 SHINE교육

나의 행복 'S'elf esteem, 너의 행복 'H'appy habit, 서로의 행복 'I'nnitiative, 우리의 행복 'N'atural, 모두의 행복 'E'xpression. 궁극적인 '우리'가 되기 위해 빛나는 교육과정을 준비했다.

“카네이션 타르트와 아이싱 쿠키, 피자 만들기를 하며 숨겨둔 나의 요리 실력을 맘껏 발휘해보자. 찾아오는 체험학습과 교외 체험학습을 다니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겨보자. 나의 행복으로 자신감을, 너의 행복으로 책임감을, 서로의 행복으로 사명감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삶의 힘을,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성취감을 빛내자.”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행복’을 목표에 두고 학생과 교사 모두 하나 되는 눈이 부시게 빛나는 시간이었다.





중학과정

자유롭게 꿈꾸고 꿈을 따라 날아가자

주어진 환경의 제약이 많았지만, 그 안에서라도 학생들이 미래를 그려 나갈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었다. 우리만의 작은 논밭을 꾸려 1년간의 벼농사를 진행하며 자연이 주는 즐거움과 수확의 기쁨을 느껴보았다. 코딩교육을 통해 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경험하고 너와 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운동회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한계를 극복해보았다.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를 초청해 특별한 직업군을 소개하고 우리처럼 다채로운 종이비행기로 하늘에 우리들의 꿈을 수놓았다. 꿈꾸는 학생들의 눈이 더 반짝이며 빛나기를, 그리고 언젠가 그 꿈을 타고 멀리 날아갈 수 있길 바란다.





고등과정

우리의 나침반 이야기

매주 불타는 화요일 6교시, 고등친구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 넓은 강당에서는 컵타, 판 뒤집기 등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협동심을 기르며, 운동장에 마련된 생태텃밭에서는 식물을 가꾸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인근공원을 산책하여 마음을 치유한다. 마을 탐방 교육으로 '버거킹'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CGV'를 방문하여 영화를 관람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한층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하면 모든 순간이 특별한 추억이 되기에 우리의 나침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전공과정

안녕하세요? '해드림(dream)'입니다

색색의 리본을 커팅하며 '해드림' 실습회사가 시작을 알렸다. 카페, 제과·제빵, 세탁, 청소, 사무보조, 조립, 스튜디오 운영까지 무엇이든 해드림 회사는 매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전화와 인터넷으로 의뢰받아 신속 정확하게 학교 곳곳을 다니며 필요한 곳에 도움을 제공하고 고객센터 게시판에서 피드백을 확인하며 매주 직원회의를 통해 학생들은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자체 제작한 상품권으로 이용요금을 받아 학생들은 노력에 따른 임금을 받고 학기마다 열리는 마켓에서 급여를 사용하며 노동의 기쁨을 경험한다. 코로나19의 종식과 '해드림' 실습회사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해드림은 다 해드린다.

글·교사 박다슬

학생성공시대_를 여는 인천교육

2022 교육회복사례 매거진

학생 성공의 기본을 다지는
교육회복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2022-0207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기획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교육회복지원팀

발행일

2022년 11월

디자인 · 인쇄

(주)글소리



2022 교육회복사례 매거진

학생 성공의 기본을 다지는 교육회복

PART 1 교육회복 정책을 논하다

PART 2 교육회복을 펼치다

PART 3 교육회복으로 도약하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교육회복지원팀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